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해외관광객 대상 에티켓 캠페인 벌인다	피렌체
문화·관광	4	베를린~브로츠와프 문화열차 내년까지 연장 운행	베를린
	6	정부건물 100여곳 미술품 DB구축 '온라인 미술관' 오픈	독일
산업·경제	8	증치세 영수증 복권 발행 시범사업 착수	상하이
사회·복지	10	시민 사회참여 독려 '양가주망의 밤' 개최	파리
행정·교육	12	어린이대사 프로그램에 5년간 13만여 명 참여	런던
	14	성공사례 반영해 새로운 노숙자 방지 모델 제시	버밍엄

## 해외관광객 대상 에티켓 캠페인 벌인다

‘즐기고 존중하는 피렌체’…유적지 낙서금지 등 6개 행동요령 홍보

이탈리아 피렌체市 / 문화·관광

- 이탈리아 피렌체市는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관광객 때문에 유적지 파손과 주민 불편 등이 심해지자 ‘즐기고 존중하는 피렌체’(#enjoyrespectFIRENZE)라는 에티켓 캠페인을 벌여 유적지 낙서금지,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지 않기 등 해외관광객의 6가지 행동요령을 홍보
- 배경
  -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는 해외관광객 수
    - 2016년 한 해 약 2,50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찾은 피렌체
  -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관광객이 늘어나 환경·사회·문화적 몸살을 앓고 있음
    - 피렌체의 유네스코 유적지 파손과 손상
      - 해외관광객의 낙서로 손상되는 유적지가 많아지고, 복구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 삶의 질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외곽으로 이사하는 주민의 비율이 증가
  - 이탈리아는 유럽국가 중 상대적으로 규율이 느슨해 마음대로 행동하는 해외 관광객이 많은 편
    - 지금까지는 권고와 주의에 그쳤지만, 앞으로 관광규정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주요 내용
  - 이탈리아 주요 관광도시와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
    - 이탈리아 5대 관광도시인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가 함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해 시너지 효과 기대
    - 올해 7월 처음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베네치아의 성공에 힘입어 피렌체가 2번째 도시로 선정
  - 공통 해시태그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홍보
    - ‘#enjoyrespect’라는 공통 해시태그를 도시 이름과 조합해 사용
    - 베니스는 ‘#enjoyrespectVENEZIA’, 피렌체는 ‘#enjoyrespectFIRENZE’

- 해외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
  - 그래픽이 인쇄된 머그잔, 티셔츠, 에코백 등을 주요 호텔에 비치하거나 해외관광객에게 무료로 배포



[그림 1] 다양한 캠페인 홍보용 물품

- 피렌체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중
  - 시민들이 해시태그를 활용해 소셜미디어로 적극 홍보, 공유
  - 호텔, 식당, 상인, 관광 가이드 등 관광업 관계자의 적극적 홍보와 성원

#### - 6가지 행동요령

- 1) 길거리, 계단, 성당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기
  - 주요 관광지의 계단이나 난간 등을 개인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피렌체 공식 관광 홈페이지에서 벤치, 공원, 피크닉 장소가 자세히 표시된 지도 제공
- 2) 관광지에서 위험한 행동 금지
  - 베키오(Vecchio)다리에 걸터앉거나, 광장의 분수대에 오르는 행위 등
  - 관광객이 음주 후에 금지 구역에 올라가 사고를 당한 사건 이후 법적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
- 3) 유적지에 그래피티(graffiti), 낙서 절대 금지
  - 관광객의 낙서가 갈수록 심해져 많은 피렌체 시민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빨간색으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
  - 지금까지는 단순 주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발각 즉시 법적 처벌이 가능
- 4) 쓰레기와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 5) 단정한 옷차림을 요청
  - 가톨릭 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켜 피렌체 성당 등 종교적인 공간에 노출이 심하거나 캐주얼한 차림을 하고 입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
- 6) 가짜 제품 사지 않기
  - 이탈리아 경찰은 길거리에서 가짜 명품백 등을 판매하는 난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
    -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최대 7천 유로(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



[그림 2] 캠페인 안내 픽토그램

<https://www.comune.fi.it/pagina/cultura-e-turismo/enjoyrespectfirenze>

<https://www.comune.fi.it/pagina/cultura-e-turismo/osservatorio-turistico-di-destinazione-otd>

<http://www.firenzetoday.it/economia/enjoyrespectfirenze-galateo-turista.html>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 문화·관광

### 베를린~브로츠와프 문화열차 내년까지 연장 운행

독일 베를린市 / 문화·관광

- 독일과 폴란드 간 문화교류사업의 하나로 2016년부터 운행했던 베를린~브로츠와프 문화 열차에 두 도시의 시민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이자, 베를린시는 문화열차를 2018년 12월 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하고 ‘작가와 함께하는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 하고 베를린 클럽 티켓 등을 제공
- 배경
  - 2016년은 독일과 폴란드가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
    - 같은 해 폴란드 서남부 도시 브로츠와프(Wrocław: 독일어로 Breslau)가 유럽의 문화도시로 선정
      - 이를 기념하여 베를린시와 브로츠와프시가 공동으로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
  - 공동 문화교류 행사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직행노선에 문화열차 사업을 접목
- 주요 내용
  - 4시간 반의 이동시간 중 열차 내부나 기차역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 두 도시의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 도시 간 직접적 문화 예술 교류, 지원,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
    - 작가와 함께 하는 여행
      - 초창기에는 “여행은 독서의 시간”이란 슬로건 아래 문학 행사를 주로 개최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등 유명 작가를 초대해 작가와의 만남, 작품소개, 승객과의 대화 등을 진행하고 열차 안에 작은도서관도 마련
    - 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
    - 두 도시의 예술가·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기획·참여한 음악, 무용, 연극 등
    - 양국의 언어 이해를 목표로 한 다양한 게임과 퀴즈 등
  - 지금까지 3만 1천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했고, 3백 명 이상의 예술가가 참여

- 토·일요일만 운행하고, 가격은 편도 19유로(2만 4천 원)
  - 브로츠와프행은 토·일요일 오전에 베를린에서 출발해 오후 1시에 도착
  - 베를린행은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에 출발
  - 가격: 편도 19유로(2만 4천 원), 왕복 38유로(4만 8천 원), 학생은 반값
- 숙박료 할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부가서비스 제공
  - 문화열차표 소지자에게 베를린시 호텔숙박료의 15% 할인
  - 베를린에서 출발한 승객은 열차표로 브로츠와프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 이용
- 왕복표를 소지한 폴란드 승객에게 ‘베를린 클럽나이트 티켓’(BERLIN CLUBNight Ticket) 제공
  - 2017년 4월부터 제공했고, 폴란드 젊은층이 큰 환영
  - 유럽 클럽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베를린의 수많은 클럽에서 아침까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입장권
  - 클럽과 연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는 클럽 밀집지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티켓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
- 2017년 11월에는 올해의 유럽 트렌드 브랜드상(Europäische Trendmarke des Jahres)을 수상



[그림 1] (왼쪽) 문화열차 안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의 일부



[그림 2] (오른쪽) 문화열차 음악회

<http://www.vbb.de/de/article/ueber-uns/presse/mit-dem-kulturzug-in-die-kulturhauptstadt-2016/409389.html>

<https://www.berlin.de/sen/kulteu/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7/pressemitteilung.656315.php>

<https://www.vbb.de/de/article/wissenswertes/vbbland-und-polen/kulturzug-nach-breslau-wroc-aw/689252.html>

<http://www.sueddeutsche.de/news/wirtschaft/bahn---potsdam-kulturzug-berlin-breslau-als-trendmarke-ausgezeichnet-dpa.urn-newsml-dpa-com-20090101-171110-99-814202>

<https://www.facebook.com/vbbpolen>

유진경 통신원, oyojin@gmail.com

## 정부건물 100여곳 미술품 DB구축 ‘온라인 미술관’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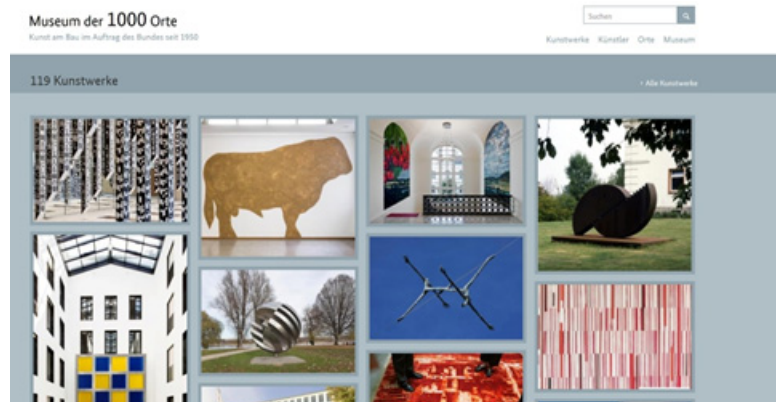
독일 / 문화·관광

- 독일 연방건설부는 지난 70여 년간 전 세계 100여 곳에 있는 정부건물에 설치된 미술작품 1만여 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000곳의 미술관(Museum der 1000 Orte)’이라는 온라인 미술관을 개장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
- 배경
  - 독일은 70년 전부터 정부건물 건축비용의 0.5~1%를 투자해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규정을 확립
    - 1950년부터 서독 정부는 정부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미술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70년간 1만여 점에 이르는 미술작품이 설치
  - 하지만 작품이 설치된 건물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대다수
    - 정부 부처, 헌법기관, 경찰청, 소방청, 학술기관 외에도 각국 해외 대사관, 재외 독일학교 등으로 그 소재지가 전 세계 100여 곳에 이름
  - 국가예산으로 사들인 작품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 주요 내용
  - 정부건물의 신축, 공간확장, 구조변경 등이 필요할 때마다 예술작품 공모를 시행
    - 해당 기관의 기능과 역사적·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
    - 70년간 1만여 점의 작품이 제작되었고, 장르는 회화·조각·키네틱아트·음향아트·개념미술 등 다양
  - 독일 연방건설부는 각지에 흩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미술작품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국토계획청에 의뢰
    - 국토계획청은 미술작품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미술관 시스템을 구축
  - 온라인 미술관 ‘1,000곳의 미술관’
    -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중요 예술가의 작품이 주류
    - 옛 동독의 정부건물에 설치된 작품도 다수 포함

- 작품 설명에는 작품이 설치된 위치, 작가 프로필, 재료, 제작기법, 비용(당시 지급 가격), 공모내용, 당시 주문상황, 일반 접근성 등을 표기
- 건물구조와 작품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구성
- 온라인 갤러리, 작품명, 작가명, 작품이 설치된 지역명, 우편번호,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

## - 의의

- 구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70년간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고 현재까지 소장 중인 예술작품을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 중요 예술가의 비공개 작품을 일반에 알리고 공유하여 독일 미술사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
- 전 세계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작품을 한 곳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그림 1] '1,000곳의 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bmub.bund.de/pressemitteilung/barbara-hendricks-eroeffnet-museum-der-1000-orte>

[http://www.bbsr.bund.de/BBR/DE/Bauprojekte/KunstAmBau/Museumder1000Orte/170621-Er%C3%B6ffnung-Museum\\_der\\_1000\\_Orte.html?nn=541840](http://www.bbsr.bund.de/BBR/DE/Bauprojekte/KunstAmBau/Museumder1000Orte/170621-Er%C3%B6ffnung-Museum_der_1000_Orte.html?nn=541840)

<https://www.museum-der-1000-orte.de>

유진경 통신원, oyojin@gmail.com



# 산업·경제

## 증치세 영수증 복권 발행 시범사업 착수

중국 상하이市 / 산업·경제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새로운 증치세 영수증 복권의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한 상하이市는 2017년 12월부터 개인소비가 일반화된 4개 업종에서 발행한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을 대상으로 최고 당첨금 100만 위안(1억 6천만 원)의 복권을 추첨
- 배경
  - 과거 영수증 발급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했던 ‘영업세 영수증 복권’ 제도가 2016년 5월 세제 개편으로 폐지
    - 기업이 영업세와 증치세(増値税: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영업세를 증치세에 통합
  - 자발적인 영수증 발행 유도와 탈세방지를 위해 새로운 영수증 복권 제도를 준비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상하이市를 ‘증치세 영수증 복권 발행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시정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 주요 내용
  - 영수증 복권의 발행 대상은 중국 내에서 개인소비가 일반화된 4개 업종
    - 요식업, 숙박업, 오락업, 인테리어업 종사자가 새로운 증치세 영수증관리 시스템에서 발행하고 검증받은 증치세 영수증으로, 전자영수증도 포함
  - 중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알리페이(Alipay)나 위챗머니(Wechat Money) 같은 모바일 전자결제 앱으로 결제한 전자영수증도 응모 가능
    -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規劃: 경제발전계획)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을 접목
      - 인터넷 플러스는 기존 산업에 인터넷 기술을 융합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정책
    -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

- 참여방법
  - 발급받은 증치세 영수증을 위챗이나 알리페이 앱을 활용해 응모
    - 위챗에서는 상하이시 국가세무국의 계정을 팔로우한 다음 응모 가능
    - 알리페이에서는 영수증 관리 메뉴의 추천 항목을 선택해 응모
- 1차 추첨(즉석 추첨)
  - 개인 소비자나 기업이 발급받은 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
  - 최저 당첨금은 5위안(800원)이고, 최고 당첨금은 100만 위안(1억 6천만 원)
    - 당첨금은 알리페이나 위챗머니로 즉시 지급
- 2차 추첨(정기 추첨)
  - 개인 소비자가 발급받은 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
    - 1차 추첨에 참여한 영수증, 개인정보가 기재된 영수증, 증치세 영수증관리 시스템에서 검증된 영수증
  - 추첨일은 상하이시 국가세무국 홈페이지와 전자결제 플랫폼에서 공지
  - 최저 당첨금은 5만 위안(800만 원), 최고 당첨금은 40만 위안(6,500만 원)
    - 당첨금은 60일 내로 상하이시 국가세무국에서 수령



[그림 1] 증치세 영수증 복권의 추첨화면과 당첨화면

<http://mini.eastday.com/a/171113212501221-2.html>

<http://baijiahao.baidu.com/s?id=1584757393322143328&wfr=spider&for=pc>

<http://sh.bendibao.com/news/2017121/187696.shtm>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 사회·복지

### 시민 사회참여 독려 ‘앙가주망의 밤’ 개최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매년 12월에 개최했던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를 격려하고 시민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앙가주망의 밤’(Paris je m'engage)을 지난 12월 6일 ‘국제 자원봉사의 날’ 행사의 일부로 개최하고, 시상식과 토론회 등을 진행
- 개요
  - 매년 12월에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후원을 받아 개최
    - 프랑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인 ‘함께 살아감’(Convivialité)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
    - 시민단체 지도자, 구성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 등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현재 파리시에는 6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이 행사는 매년 성황리에 개최
    - 파리시의 자원봉사 시민단체의 핵심 행사이며, 대학생의 사회참여, 빈곤 투쟁, 사회혁신 등을 주제로 한 연구와 토론도 진행
  - 2017년에는 ‘연대와 사회적 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 자원봉사의 날’ 관련 행사의 하나로 개최



[그림 1] ‘앙가주망의 밤’ 행사에서 연설 중인 이달고 시장

- “파리와 같은 도시에 시민의 참여와 시민단체의 행동이 없다면, 공화국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참여에 나서는 시민은 타자에 대한 회의주의와 공포를 막아주는 항체입니다.”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연설 중에서

#### - 주요 내용

- 1) 자원봉사 시민단체를 설립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부스 18개 설치
- 2) 대학생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집중토론
  - 프랑스 사회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 3)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을 모색하는 세 차례의 난상토론
- 4) 혁신적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한 시민단체의 프로젝트 6개를 선정해 수상
- 5) 파리시가 난민 등 소외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한 회의와 관련 프로젝트 소개
- 활발한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를 하는 세 명의 여성을 소개
  - 1) 티펜(Typhaine)은 ‘과감히 페미니즘을 실천하다’(Osez Le Féminisme!)라는 단체와 CFCV(Collectif Féministe Contre le Viol, 강간에 맞서는 페미니즘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
    - CFCV는 강간 피해자를 돕는 단체로, 강간 피해와 관련된 전문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
  - 2) 니콜(Nicole)은 ‘Alerte SOS’라는 동물보호단체를 직접 만듦
    - ‘Alerte SOS’는 매년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해주고 있으며 매일 수십 통의 구조 전화를 소화
    -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 유기동물의 입양을 주선
    - 다른 유럽국가의 동물보호단체와 구호조직을 결성해 활동
  - 3) 뤼실(Lucille)은 파리 18구 에마우스 솔리다리테(Emmaüs Solidarité)의 난민 구호센터 자원봉사자로 활약
    - 할머니와 어머니가 난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계속했으며, 이를 보고 자란 뤼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구호센터에서 봉사하게 됨

<https://www.paris.fr/actualites/paris-je-m-engage-vous-donne-rendez-vous-le-6-decembre-5336>

<https://www.paris.fr/actualites/paris-je-m-engage-retour-en-images-sur-la-soiree-5384>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 행재정·교육

### 어린이대사 프로그램에 5년간 13만여 명 참여

영국 런던市 / 행재정·교육

- 영국 런던市에서 초·중학생의 자원봉사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팀런던 어린이대사’(Team London Young Ambassadors)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13만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참여한 학생의 학습 동기가 강화되고 리더십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큼

#### - 개요

- 런던의 초·중학교(Primary & Secondary School) 학생의 자발적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학생들이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지역사회의 이슈를 찾아 봉사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런던시의 자원봉사 플랫폼 팀런던(※ 400호 참조)에 신청
  - 각종 사회참여 모임을 조직하는 일을 돕는 단체 ‘WE’가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프로그램과 도우미를 제공
- 준비모임, 워크숍, 어린이 서밋, 캠페인, 후속 지원, 시상의 프로세스를 진행
  - 1) 준비모임: 강연자가 파견되어 자원봉사와 사회참여의 동기를 부여
  - 2) 워크숍: 실제 봉사 활동에 참여해보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다룰 사회적 이슈를 직접 선택
  - 3) 어린이 서밋: 어린이대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과 회담
  - 4) 캠페인: ‘WE’에서 제공하는 캠페인 키트를 활용해 실제 캠페인을 진행
    - 캠페인 키트에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 각종 사회적 이슈를 정리한 이슈카드, 참고자료가 담긴 USB, 포스터 등이 포함
  - 5) 후속 지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 6) 시상: ‘WE’와 팀런던 등 관련 기관에서 우수 활동을 시상
- 지금까지 어린이대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이슈는 주로 다음과 같음
  - 노숙자, 가난과 굶주림, 왕따, 성평등, 난민, 자연환경, 정신건강, 자존감 등

– 성과와 사례

- 2017년까지 40만 명의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었고, 13만 4,400명의 어린이가 직접 자원봉사와 어린이대사 활동을 수행
- 런던 내 2,100개의 학교가 어린이 대사 프로그램에 참여
- 지역의 주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16만 5,900파운드(2억 4천만 원)를 모금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
  - 참여 학생 중 배우의 열망이 더 커졌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79%, 리더십이 향상되었다고 한 어린이가 91%
  - 참여 교사의 93%가 어린이대사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 간의 연계와 소통이 좋아졌다고 응답
- 2017년 11월 중순에 열린 ‘#iwillweek 2017’ 행사에서 어린이대사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런던의 한 초등학교가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서밋을 개최
  - 10~20대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I Will’ 캠페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 런던 서부지역 9개 학교에서 7~14세의 어린이 100여 명이 참석하여 건강과 웰빙의 의미,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토론
- 교내에서 ‘정신건강 인식의 날’(Mental health awareness day) 행사를 기획하는 등 모든 참석자가 ‘건강과 웰빙’ 이슈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



[그림 1] ‘건강과 웰빙’을 주제로 한 어린이 서밋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young-ambassadors-inspire-youth-summit>

<https://www.london.gov.uk/what-we-do/volunteering/reducing-barriers-social-mobility/team-london-young-ambassadors#acc-i-42910>

[https://www.metowe.com/about-us/?\\_ga=2.92104985.260661809.1513302332-1910295124.1513302332](https://www.metowe.com/about-us/?_ga=2.92104985.260661809.1513302332-1910295124.1513302332)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 성공사례 반영해 새로운 노숙자 방지 모델 제시

영국 버밍엄市 / 행정정·교육

- 영국 버밍엄市는 주거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노숙자(Homeless) 정책에서 탈피해, 노숙자 위험군을 추가하고 다른 단체의 성공사례를 반영해 상황별 대책을 수립한 새로운 노숙자 방지 정책 모델을 지난 12월 12일 제시

### - 배경

- 버밍엄시의 '2016년 노숙자 보고서'(Homelessness Review 2016)에 따르면, 2만 가구 이상이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으로 분류
  - 노숙자 문제의 핵심 원인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 35세 이하 1인 가구의 안정적인 독립적인 주거의 어려움,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부족 등
- 2016 노숙자 보고서는 노숙자가 되는 핵심 요인으로 단기 임차계약의 종료, 가족 해체, 가정폭력의 3가지를 제시
  - 노숙자가 되는 배경에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사 등이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기존의 노숙자 방지 정책은 주로 주거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택 공급에 치중
  - 노숙자 위험군의 장기적 주거안정성과 능력 함양에는 소극적
  - 변화하는 사회, 인구, 경제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식적 절차만을 요구해 유연성이 부족
- 기존 정책이 반영하지 못한 노숙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새로운 노숙자 방지 정책이 필요

### - 주요 내용

-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노숙자 방지 정책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다양한 노숙자 위험군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
- 새롭게 추가한 노숙자 위험군
  - 보호자를 잃었거나 보호가 필요한 청년·청소년 계층
  - 수감 등으로 제도권을 떠나있거나 떠났던 경험이 있는 성인
  -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육체적·인지적 장애가 있거나 학습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알코올·약물 남용의 기록이 있는 사람
- 복잡하고 다양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
- 가정폭력에 시달린 가족
- 비영리 단체 바실리우스회(St. Basils)의 청소년 노숙자 방지 서비스(Youth Homelessness Prevention Service)를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한 새로운 정책 모델 제시
- 다음 5가지 영역을 위주로 노숙자 방지 대책을 설계
  - 1) 보편적 방지 대책: 대증을 대상으로 주택과 비주택을 가리지 않고 선택 가능한 모든 주거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
  - 2) 선택적 방지 대책: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은 계층을 선별해 집중 관리
  - 3) 즉시 개입과 구호 대책: 노숙자로 편입된 계층에게 가능한 빠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4) 노숙자 회복 대책: 현재의 노숙 상황과 경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
  - 5) 지속가능한 주거 대책: 시민에게 부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제공
- 파트너십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개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 주 대상은 선출직 의원, 지방정부, 아동 신탁(信託), 주택공급자, 자원봉사 단체, 법정 기관 등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99/doing\\_things\\_differently\\_to\\_prevent\\_homelessnes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99/doing_things_differently_to_prevent_homelessnes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www.stbasils.org.uk>

[https://birmingham.cmis.uk.com/birmingham/Decisions/tabid/67/ctl/ViewCMIS\\_DecisionDetails/mid/391/Id/eb4ed5fb-afca-4b32-a970-0a63c613d860/Default.aspx](https://birmingham.cmis.uk.com/birmingham/Decisions/tabid/67/ctl/ViewCMIS_DecisionDetails/mid/391/Id/eb4ed5fb-afca-4b32-a970-0a63c613d860/Default.aspx)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뮌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